

IFEZ 투자유치 전략(요약본)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IFEZ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상당부분 인프라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입주기업 유치 단계로 진입, **IFEZ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입주기업 투자유치 전략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
- 경제자유구역 2차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 패러다임을 “개발·외자유치”중심에서 → “혁신성장”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제시
-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의 변화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국내 7개 FEZ 중 외국인투자 선도 도시로서 투자유치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 마련으로 FEZ 투자유치를 견인할 필요
- 천편일률적인 투자유치 IR에서 벗어나 분야별 투자유치 혁신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만의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필요
- 또한 양적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질적 투자로의 전환을 통한 동북아의 지식 및 혁신성장 허브화 전략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마련할 필요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상기 언급한 정책 및 글로벌 환경의 변화로 **IFEZ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고려 하에, IFEZ에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혁신성장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 비전 제시를 통한 IFEZ의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정하여 투자유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1. 연구 방법

문헌조사

- IFEZ 투자유치 및 환경 평가 (선행연구 등 검토)
- 해외 경제특구 FDI 유치 성공요인 등 선행연구 조사
- 해외 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 컨셉과 정책 조사
- 혁신과 창조적 IFEZ 조성을 위한 사례 조사

FDI, 산업, FEZ 관련 전문가 공동연구 및 정례 회의 개최

- 관련 전문가 Pool 구성, 공동 연구
- FDI, 산업, 도시건설 등 FEZ 관련 전문가 정례회의를 통한 투자유치 전략 마련

현장 방문(면담) 조사

- IFEZ 입주기업 (Celtrion, Samsung Biologics 등) 심층면접과 설문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IFEZ내 투자 유치 담당 PM 면담 및 협력을 통한 현안 분석 및 대안 모색

통계 분석 및 계량 분석

- 외자유치 실적 및 개발사업 등 진척도 등 추진성과 관련 통계 자료 분석
- IFEZ 관련 지표 등을기반으로 통계분석

잠재적 투자자 리스트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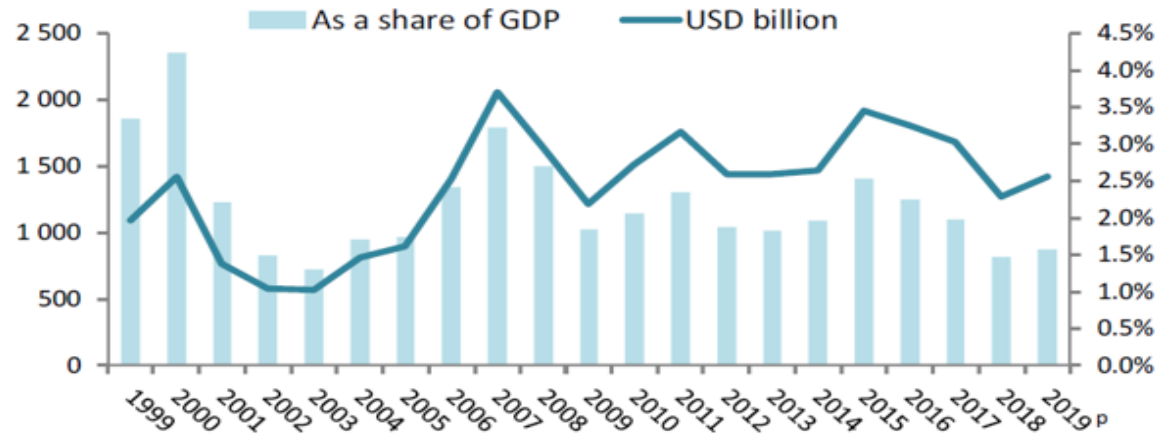
- 주요 해외사례 관련 제도, 자료분석 및 현지조사, 관계자 면담
- KIS-Value, Factiva, Eikon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한 투자유치 대상 기업 재무 분석

2.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 분석

2-1. 글로벌 FDI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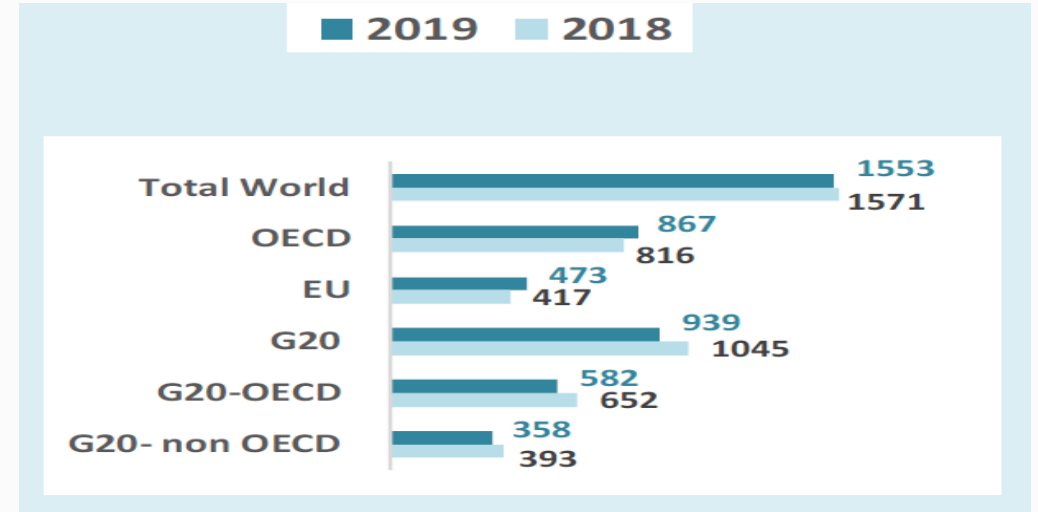
2-2. IFEZ의 투자유치 성과 및 투자환경 분석

2-1. Global FDI 동향: Global FDI Flows, 1999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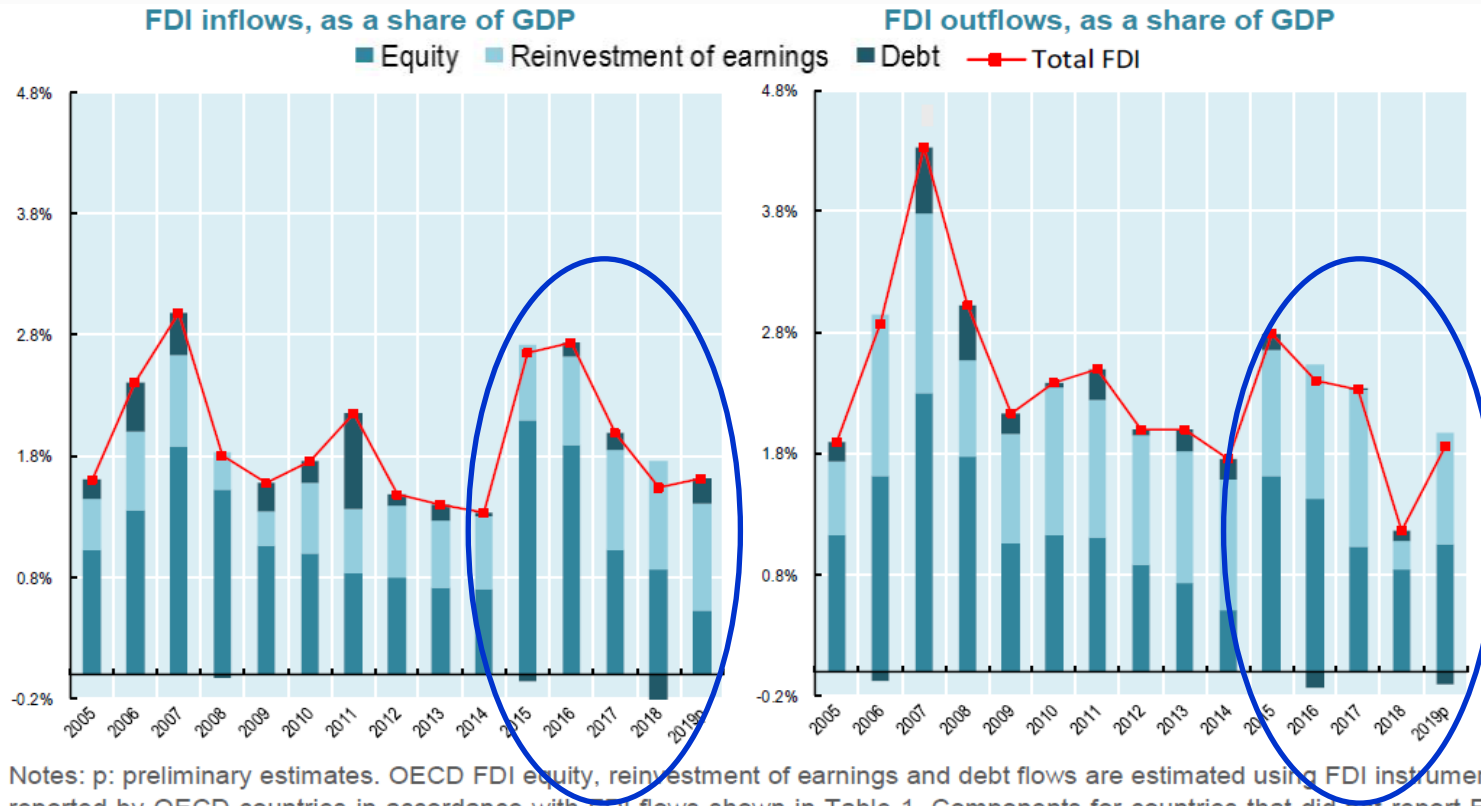
Source: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database.

- 2019년 Global FDI 는 1조 4260억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
전세계 GDP의 1.6%로 2015년-2017년의 2%에 비해 낮은 수준.
- 미국과 네덜란드의 positive outward FDI flow 때문이며 일본의 outward FDI flow도 증가에 기여. Takeda Pharmaceutical이 Shire PLC 인수 결과
- 2019년 Global FDI가 다소 증가했음에도 2015년 이후 global FDI flow가 빠르게 감소. 2019년도에 다소의 반등이 있었으나, COVID-19 로 인해 2020년도의 Global FDI는 약 30% 이상 감소 전망. (OECD)



- OECD 국가로의 FDI flow는 8670억 달러로 6% 증가, **global FDI inflows의 56% 차지.**
- EU로의 FDI inflows는 14% 증가. Global FDI유입의 31%.
- 2019년 G20국가로의 FDI inflows 은 10% 감소.
- G20국가들 중에서 OECD 비회원국으로의 FDI는 9% 감소. 이는 2010년부터 중국으로의 유입이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며, 이 감소분은 브라질, 인도, 러시아의 증가분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됨.

2-1. Global FDI 동향: OECD FDI flows by instruments, 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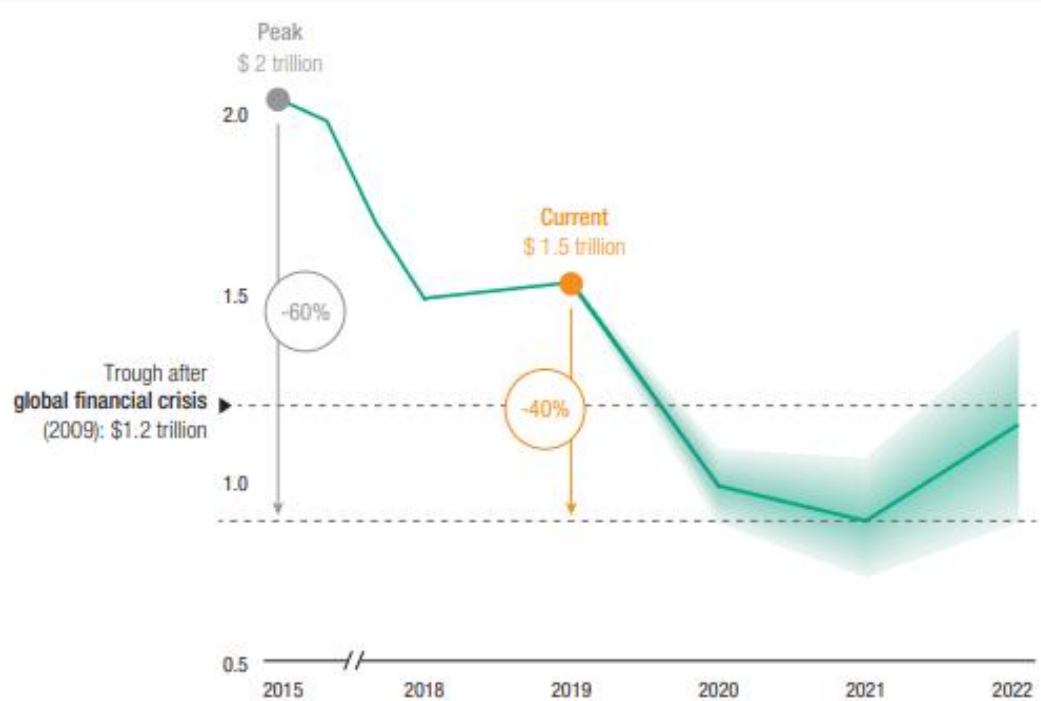


Notes: p: preliminary estimates. OECD FDI equity, reinvestment of earnings and debt flows are estimated using FDI instruments reported by OEC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FDI flows shown in Table 1. Components for countries that did not report FDI aggregates by instrument on directional basis were estimated using equity and reinvestment of earnings reported on asset/liability. Components for countries that did not report FDI instruments for historical years were estimated by using instrument shares observed in non-revised data.

Source: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database.

- FDI flow는 equity capital, reinvestment of earnings, intracompany debt로 구성
- 2019년 OECD국가의 FDI equity inflows (M&A, Greenfield) 37% 감소
- 2019년 OECD국가의 FDI equity outflows 는 26% 증가
(일본의 Shire PLC 인수도 기여)

2-1. 글로벌 FDI 전망 UNCTAD's forecasting model. 글로벌 FDI 유입, 2015-2019년과 2020-2022년 예측 모델 (단위: 조 달러)



Source: UNCTAD.

- COVID-19 위기로 인해 2020-2021년 글로벌 FDI 전망은 암울
- 글로벌 FDI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1년에도 5~10% 더 감소하고 2022년에나 되어서 서서히 회복될것으로 전망
- 글로벌 투자환경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미중 통상분쟁 등 지정학적 위협요인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글로벌 팬데믹 현상 종료에 대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
- 특히 COVID-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는 글로벌 FDI를 감소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음.
- UNCTAD의 FDI 예측모델에 따르면, FDI 흐름은 2021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COVID-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정치 및 무역 긴장과 전반적인 불확실한 거시경제 전망으로 인해 감소 추세

- 2021년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 2020~2021년간의 FDI 감소 추세는 일시적 충격 흡수 이후 팬데믹과 경제 위기 영향으로 해석.
- 2021년 이후 예측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예측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의 불확실성이 높고 특히 중장기에 걸쳐 COVID-19 과 이후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
- 2022년 상한으로 제시되는 U자형 궤도는 COVID-19의 충격이 완전히 흡수되면 총 FDI 유입량이 궁극적으로 기본 FDI 추세로 되돌아 간다고 예측

2.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 분석

2-1. 글로벌 FDI 동향 분석

2-2. IFEZ의 투자유치 성과 및 투자환경 분석

2-2. IFEZ의 투자유치 성과 및 투자환경 평가

<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의 변화(신고기준)>

(단위: 억 달러)

년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9
우리나라 전체	8.0	19.7	152.7	115.7	130.7	209.1	229.5	233.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비중)	-	-	-	0.76 (0.7)	5.01 (3.8)	12.06 (5.8)	0.91 (0.4)	9.06 (3.9)

출처: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현황’

<표.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륙별 구성(신고기준)>

(단위: 억 달러, %)

	2010		2015		2017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신고기준)	130.7	100	209.1	100	229.5	100	233.3	100
미주	26.8	20.5	84.5	40.4	63.0	27.5	85.7	36.8
아시아	69.0	52.8	83.6	34.0	82.4	35.9	66.3	28.4
유럽	32.9	25.2	27.0	12.9	73.0	31.8	73.6	31.6
중동	1.71	1.3	13.8	6.6	10.7	4.7	75.3	3.2

주: 전체 금액 합계는 소수점 이하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2-2. IFEZ의 투자유치 성과 및 투자환경 평가: Why IFEZ?

EDB 순위 상위 20개국 (2019년 3월 2일 현재)

순위	국가	DB점수	순위	국가	DB점수
1	뉴질랜드	86.6	11	리투아니아	81.6
2	싱가포르	86.2	12	말레이시아	81.5
3	홍콩	85.3	13	모리셔스	81.5
4	덴마크	85.3	14	호주	81.2
5	대한민국	84.0	15	대만	80.9
6	미국	84.0	16	UAE	80.9
7	조지아	83.7	17	북마케도니아	80.7
8	영국	83.5	18	에스토니아	80.6
9	노르웨이	82.6	19	라트비아	80.3
10	스웨덴	82.0	20	핀란드	80.2

출처: World Bank(2020, p.4)에서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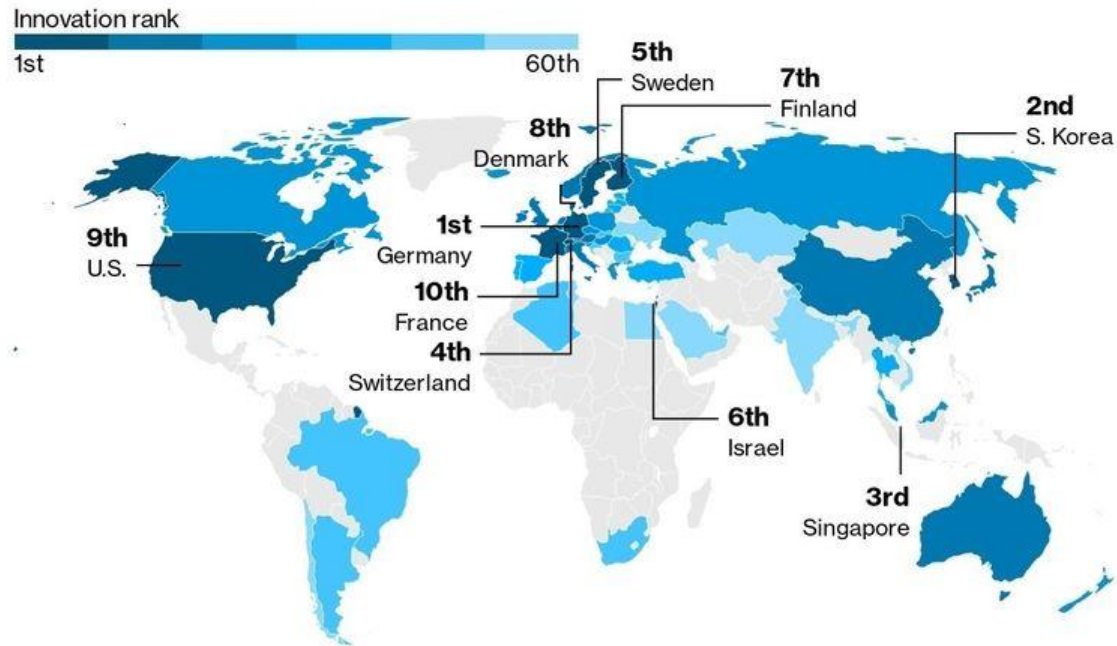
- IFEZ 투자유치 **selling point**
-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
-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 및 지식재산권 보호, 높은 삶의 질, FDI 친화적인 정부 정책, 원스톱 투자 서비스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음
-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5위. 2014년 이후 Top 5를 5년 연속으로 유지
-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수도, 통신 한국의 전력과 물의 공급기반 및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
 - ✓ 전국에 초고속 모바일 통신망이 완비되어 있어 단 하루 만에 통신망 개통이 가능

2-2. IFEZ의 투자유치 성과 및 투자환경 평가: Why IFEZ?

- 2019년 Bloomberg가 세계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GII(세계혁신지수)순위에서 한국은 R&D 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첨단기술 집중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6년 연속 세계 1위. 2020년에는 88.16점으로 독일의 88.21에 이어 2위로 밀려남.
- 생산성이 18위에서 29위로, 교육효율성이 7위에서 16위로, 제조업 부가가치가 2위에서 3위로 밀려 전년 대비 한 단계 낮은 성과를 기록

World's 60 Most Innovative Economies

China inches into top 15 in 2020 as Japan drops out of top 10



Sources: Bloombe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한국의 혁신 능력은 IFEZ의 투자유치 분야인 Bio, ICT, Logistics 분야 투자유치에 핵심적 요소

2020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20 Rank	2019 Rank	YoY Change	Economy	Total Score	R&D Intensity	Manufacturing Value-added	Productivity	High-tech Density	Tertiary Efficiency	Researcher Concentration	Patent Activity
1	2	+1	Germany	88.21	8	4	18	3	26	11	3
2	1	-1	S. Korea	88.16	2	3	29	4	16	5	11
3	6	+3	Singapore	87.01	12	2	4	17	1	13	5
4	4	0	Switzerland	85.67	3	6	14	10	17	3	19
5	7	+2	Sweden	85.50	4	16	19	7	13	7	18
6	5	-1	Israel	85.03	1	31	15	5	32	2	7
7	3	-4	Finland	84.00	10	15	9	14	24	9	10
8	11	+3	Denmark	83.22	7	24	6	8	31	1	24
9	8	-1	U.S.	83.17	9	27	12	1	47	29	1
10	10	0	France	82.75	13	39	16	2	20	17	8
11	12	+1	Austria	82.40	6	11	13	19	12	8	16
12	9	-3	Japan	82.31	5	5	35	9	30	16	12
13	15	+2	Netherlands	81.28	17	28	17	6	36	12	14
14	13	-1	Belgium	79.93	11	25	11	13	49	14	13
15	16	+1	China	78.80	15	14	47	11	5	39	2
16	14	-2	Ireland	78.65	34	1	1	12	39	20	34
17	17	0	Norway	76.93	16	51	5	20	10	10	22
18	18	0	U.K.	76.03	21	44	27	15	6	19	21
19	21	+2	Italy	75.76	24	23	21	16	33	25	20
20	19	-1	Australia	74.13	18	55	8	21	15	31	6
21	31	+10	Slovenia	73.93	19	8	20	40	14	15	26
22	20	-2	Canada	73.11	22	35	26	26	35	21	9

2-2. IFEZ의 투자유치 성과 및 투자환경 평가: Why IFEZ?

- IFEZ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항과 항만**이 있어 물류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 ICT 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IFEZ의 물류 경쟁력**
 - ✓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경쟁력 1위를 바탕으로 동북아 최고의 지리적 입지를 자랑
 - ✓ 동북아, 동남아와 북미 및 유럽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으로 항공물류 거점으로서의 최고의 지리적 경쟁력 보유
 - ✓ 배후 시장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3시간 내 비행시간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61개, 20억 인구 분포
 - ✓ IFEZ는 이러한 물류 경쟁력으로 첨단 산업 유치에 높은 경쟁력 보유
- **IFEZ의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 ✓ **스마트 시티로써 최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갖춘 국제 업무지구 등 국제기구들이 입주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경쟁력 보유
 - ✓ 삼성바이오투를 비롯해 셀트리온 등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 메카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국제도시로서 바이오 R&D 뿐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 물류경쟁력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
 - ✓ **세계 최고의 IT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과 산업기반을 갖춘 국제도시**
- IFEZ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특구
 - ✓ 최상위 개념의 경제특구로서 경제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첨단 미래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 보유

2-2. IFEZ의 투자유치 성과 및 투자환경 평가: Why IFEZ?

-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기반:**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철강, 배터리, 화학,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
-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정부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지원
 -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산업혁신성장프로젝트로 규정하고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 중
- **한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 ✓ 한국은 글로벌 3대 경제 체인 유럽연합, 미국, 중국과 동시에 FTA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
 - ✓ 52개국과 체결한 FTA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
 - ✓ 한국은 아시아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국가

3. IFEZ 정주환경 개선 방안

3-1. 외국인 정주환경 설문조사

3-2. IFEZ 거주 외국인 현황분석

3-3. 글로벌 도시와의 비교를 위한 글로벌파워시티 지수

3-4. 외국인 고용 용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3-5. 외투기업 소속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통제 변수의 정의

통제변수 측정항목		조작적 정의
설문유형		영어-0; 기타-1
외국인투자기업 여부		Yes-0; No-1
성별		남자-0; 여자-1
연령(30대*)	20대	20대-1; 기타-0
	40대	40대-1; 기타-0
	50대 이상	50대 이상-1; 기타-0
출신대륙 (아메리카*)	아시아	아시아-1; 기타-0
	아메리카/아시아 이외	아메리카/아시아-0; 기타-1
비자 유형 (E타입*)	D타입	D타입-1; 기타-0
	A타입	A타입-1; 기타-0
	E, D, A비자 이외	E 타입-0; D타입-0; A타입-0; 기타-1
거주지역		송도-0; 기타-1
현재까지 거주 기간		<1년-1; 1~2년-2; 2~3년-3; 3~5년-4; >5년-5
동반 거주자 숫자		응답자를 제외한 동반거주자 숫자

*기준집단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 측정항목		조작적 정의
정주만족도	교육기관 만족도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 5점 척도
	문화환경 만족도	
	언어소통환경 만족도	
	의료기관 만족도	
	IFEZ 안전도	
	대중교통 만족도	
직무만족도	업무부담 만족도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 5점 척도
	직장내 인간관계 만족도	
	근무조건 만족도	
	경력 미래 만족도	

■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측정항목	조작적 정의
본국으로 복귀 희망 여부	부-1; 여-0
IFEZ 정주 추천 의사	없다-0; 있다-1
향후 인천 거주 기간 계획	<1년-1; 1~2년-2; 2~3년-3; 3~5년-4; >5년-5
IFEZ 거주 종합 만족도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 5점 척도

IFEZ 정주만족도/직무만족도 관련 설문 참여자 특성

■ 기술통계치 – 총 180명 응답 중 유효표본 177개 분석
 (IFEZ 내 외투기업 소속 외국인 약 700명 중 25.7%가 조사 참여, 양호한 응답율)
 (참고: IFEZ 내 사업체 소속 외국인 약 1,300명 중 13.8%)

변수	항목	빈도(N=177)	비율(%)
외투기업 소속	여	147	83.1
	부	30	16.9
성별	남자	100	56.5
	여자	77	43.5
연령	20대	29	16.4
	30대	66	37.3
	40대	45	25.4
	50대 이상	37	20.9
출신대륙	아메리카	83	46.9
	아시아	46	26.0
	유럽	27	15.3
	오세아니아	11	6.2
	아프리카	10	5.6
비자 유형	E 타입	66	37.3
	D 타입	26	14.7
	A 타입	65	36.7
	기타	20	11.3

IFEZ 정주만족도/직무만족도 관련 설문 참여자 특성

■ 기술통계치

변수	항목	빈도(N=177)	비율(%)
거주지역	송도	151	85.3
	기타	26	14.7
거주 기간	1년 미만	35	19.8
	1~2년	38	21.5
	2~3년	32	18.1
	3~5년	45	25.4
	5년 이상	27	15.3
동반가족 수	0	92	52.0
	1	38	21.5
	2	16	9.0
	3	20	11.3
	4	9	5.1
	5	1	0.6
	7	1	0.6
한국어 구사능력	거의 못 한다	58	32.8
	인사 등 조금 할 수 있다	71	40.1
	간단한 일상회화는 할 수 있다	25	14.1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회화는 할 수 있다	12	6.8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다	11	6.2

- 조사에서의 5개 정주환경 문항 평균(3.27점)이 일반 외국인 거주자 대상 지난 3년간 조사의 평균인 4점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남.
- ✓ 소속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통해 IFEZ 정주 시작과 정주 종료 결정되는 외투기업 소속 **외국인 종업원에게 정주여건 만족도는 기업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음을 확인**
- 정주환경 관련 6개 문항 분석 결과 **안전 만족도(2020년 조사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는 4.5점의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교육/교통/의료는 3.5 안팎의 무난한 점수를 보임.** 문화와 언어는 3점 미만의 미흡한 점수를 보임. 환경 별 만족도의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함.
- ✓ 조사설계 관점에서 안전 문항 미포함의 기존 조사에 비해 정주여건 만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개선을 실현하였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안전 요인 고려 시 외국인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보다 높음(3.27 점 ⇒ 3.48점)을 발견함.**
- **문화시설/장소 설문에서 1/3의 응답자는 공원을 언급, 1/3은 선호하는 문화시설/장소가 없다고 응답.** 코로나사태가 응답에 영향을 일부 미침. 문화환경 관련 서울 의존형 응답 비율은 예상보다 낮은 7% 수준으로 보임. **쇼핑 등의 문화환경 H/W는 구비되었으며, 공연 중심의 문화콘텐츠 공급에 주력해야 할 시점임을 다시 확인함.**
- 본 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직무만족 4개 문항의 경우 인간관계와 근로조건은 3.6점대, 업무부담과 미래경력 전망은 3.3점 대를 기록함. 국내공공기관 점수와 비교하여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외투기업/국제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가 상당함.**
- 직무만족도에서 **E-type (외투기업 일반 외국인 종업원) 만족도가 D 타입(외국인 투자자와 외투기업 외국인 임원급)과 A 타입(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종업원) 만족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현상 발견:** 두 집단 간의 구분과 별도 대책 필요

- 교육기관환경 관련 D-type 및 A-type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컸고, 안전 관련 D-type 비자 소지자의 불만이 유의하게 컸음. **D-type의 투자비자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별도로 고민할 필요. 문화환경 관련 여성의 큰 불만 해소 방안 필요.**
- **아시아대륙 출신들의 교육기관 만족도와 안전 관련 만족도가 예상 밖으로 다른 대륙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본국의 지인들에게 IFEZ 정주를 추천할 의사는 아시아대륙 출신들이 다른 대륙 출신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시아인 대상 적극 고려가 필요함.
- 5개문항으로 구성된 1요인보다 안전 문항 추가한 6개 문항의 2요인 모델 또는 6개문항의 1요인 모델이 보다 타당함. 문화/언어 만족도의 특성과 정주필수조건(안전/교육/교통/의료) 구분 필요 확인
- 언어 소통만족도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 직무만족도 3개 문항에서 50대 이상 연령대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음. 근무조건 제외 3개 문항 직무만족도에서 5년 이상 거주자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음. 투자의 유치가 아닌, 기 투자의 유지와 확충의 관점에서 장기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인적 특성 집단 별 관리가 필요함.

- 거주종합만족도에 생활시스템만족도와 직무만족도가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문화/언어는 유의하지 않음. 직무만족도의 효과 크기는 생활시스템만족도의 2/3 정도임.
- 향후 거주기간 계획에 직무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 정주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조속한 귀국 희망의 역코딩으로 측정된 IFEZ 잔류 의사는 두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추정의 문제가 영향을 미침.
- 정주추천의사에는 직무만족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침.
- 직무만족이 여러 결과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남.
- ✓ 정주만족도의 효과분석에 대한 IFEZ 기존 조사 및 선행연구들은 직무만족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정주만족도 효과를 과대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정주환경 관련 정책 필요성
- ✓ 정주종합만족도와 향후 정주 기간 및 정주추천의사 등에 대해 정주환경 관련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무만족도가 영향을 미침: IFEZ 내 외투기업 등에서의 근로조건, 임금수준, 인간관계 등 여러 직무 관련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아울러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외국인 정주 필수 요건인 생활시스템환경(안전/교육/교통/의료)과 문화언어환경의 구분이 필요함. **IFEZ가 제공할 수 있는 초점은 생활시스템환경 개선이며, 문화/언어환경 개선은 외국인거주자의 주체적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아울러 외국인의 장기 정주가 필수적임으로 인해 IFEZ만의 지속적 개선은 큰 효과를 낳기 어려움.
- ✓ 문화/언어만족도의 중요성 및 효과에 대한 단기중심 접근이나, 영향력의 과대평가를 경계할 필요
- ✓ 교육기관환경 관련 **D-type**(투자자 및 기업 임원) 및 **A-type**(국제기구)의 불만이 **E-type**(외투기업 소속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고, 안전 관련 **D-type** 비자 소지자의 불만이 유의하게 컸음. **D-type**의 투자비자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외국인 투자자/임원급을 위한 프리미엄급 정주환경 제공”**)을 별도로 고민할 필요. 문화환경 관련 여성의 큰 불만 해소 방안(**“여성 친화적 IFEZ 지향”**) 필요
- ✓ 단계별 개선 방안 필요: 현 수준에서 4점에 달하는 일반인 거주자 만족도 제고, 3.5점에 머무는 외투기업 소속 외국인 만족도 제고의 **two-track** 개선 방안 실행 필요

- 직무만족도 관련 정책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중 가장 중요한 점은 IFEZ 거주 외국인 정주종합만족도와 향후 정주 기간 및 정주추천의사 등에 대해 정주환경 관련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무만족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외국인 투자자와 임원, 외투기업 외국인 종업원이 체감하는 IFEZ 정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의료/교통/문화/언어 등의 정주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외투기업에 대한 직장만족도가 보다 개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IFEZ 내 외투기업 등에서의 근로조건, 임금수준, 인간관계 등 여러 직무 관련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아울러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모니터링 효과성 개선을 위해 IFEZ가 매년 진행하는 IFEZ 외투기업 실태조사의 내용 중 외투기업 종업원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또한 IFEZ 외투기업 대상 근로감독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외투기업 근로조건 개선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함.

- **IFEZ 자체 설문조사 10년의 평가와 업그레이드 필요성**
- 매년 진행되는 IFEZ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외국인 거주자 대상 조사 이외에, 외투기업 소속 외국인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와 직무만족 관련 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큼. 현재 IFEZ 조사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투기업 소속 외국인 종업원의 적은 모집단과 외투기업 협조 없이는 설문조사 진행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IFEZ 설문조사의 진행을 IFEZ 내 외투기업 관계자 커뮤니티(예: 외투기업 투자담당자/인사담당자 모임)에 안정적으로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투기업의 설문조사 참여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참여기업별 조사 결과 분석 제공 검토 필요
- 본 조사에서는 **외투기업 종업원과 국제기구 구성원을 비자유형으로 구분**하였음. 그러나 외투기업 내에서의 업종/산업별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향후 업종/산업별 구분에 의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의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4. IFEZ 투자유치 전략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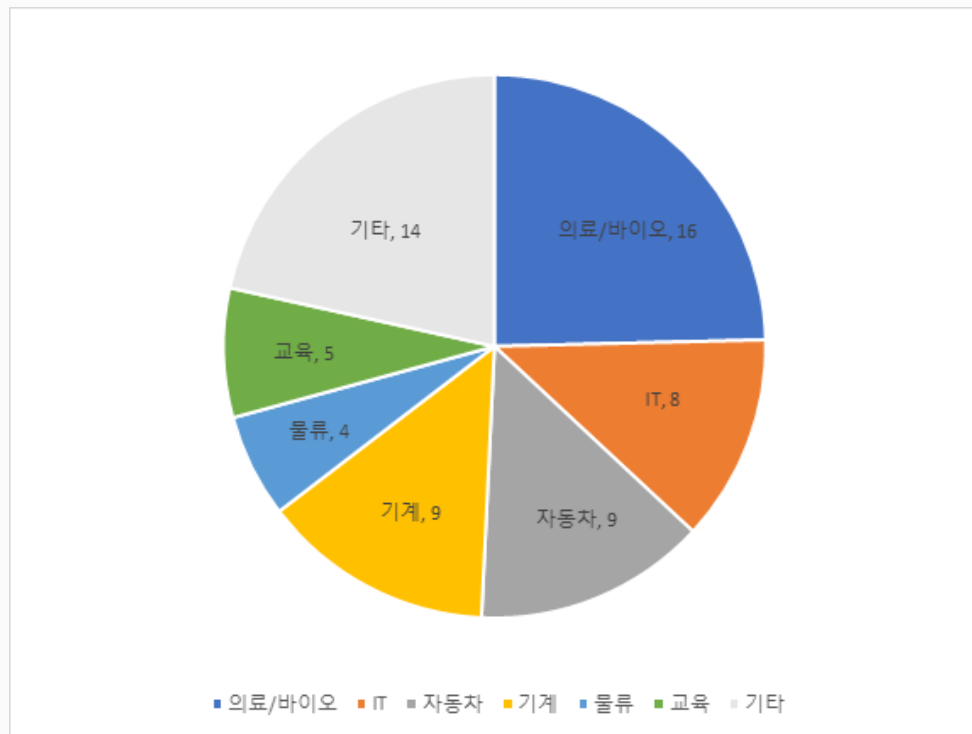
4-1. IFEZ의 투자유치 방향

4-2. IFEZ의 투자유치 아이템 포트폴리오 수립

4-3. IFEZ의 투자유치 기업 도출

4-1. IFEZ 투자유치 방향: 투자현황

- 2019년 기준, 지역내 총 사업체수는 3,039개인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수는 146개**에 불과하며, 외국인투자의 **주요 업종은 주로 의료·바이오, 자동차, 기계, 반도체**에 국한
- 제조업 분야에서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과 일본**이며, 미국은 의료·바이오, 일본은 자동차부품, 의료·바이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미국의 바이오산업 투자 실적은 3건이지만, 주요 투자의 실질적 주체는 삼성그룹(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텍스)임에 따라 엄격한 의미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패턴을 종합하면, 미국의 송도지역 투자는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화물운송, 데이터처리) 및 교육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일본은 14건의 투자를 하였고, 투자분야는 반도체, 의료·바이오, 자동차부품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투자 분야는 제조업 중심이며, 전기·전자(4건), 자동차(3건), 바이오(3건), 기계(4건) 등으로 집계된 반면, 여타 분야의 투자는 소극적임.



4-1. IFEZ 투자유치 방향(바이오)

-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13개로서, 대표적 (준)대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있고, 얀센백신, 스마트바이오팜, 펄자임 등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IFEZ내 의약품 제조하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백신, 앤디바이오, 바이넥스, 스마트바이오팜 등 6개뿐이고, 제조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연구중심의 기업이 다수임.

업종	기업명	주력 분야
의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의약품 생산
	셀트리온	바이오 의약품 생산
	펄자임	효소를 이용한 가축, 어류 항염증제
	얀센백신	존슨앤존슨계열사로 각종 백신 생산
	앤디바이오	합성의약품
	루다큐어	안구질환 및 통증치료제 개발
	보로노이	신약 개발(임상후기단계는 제외)
	스마트바이오팜	의약품 원료 및 시약개발·생산
	바이넥스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소재	도원바이오테크	의료용 임시치아 원료 (플라스틱 생산 위주)
의료기기	에이비아이	체외진단기기
	인튜이티브메디코프	조직 및 세포 공학
연구서비스	노터스	연구대행 서비스

4-1. IFEZ 투자유치 방향(바이오)

-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의료 및 방역체계, 진단키트의 우수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외국인 기업의 유치 혹은 조인트 벤처(JV) 등을 통한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인천/송도 주변의 가용 가능한 수준 높은 인프라와 결합한다면, 외국인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이 될 것임.
- 의약품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의약품 제조기업들과 연계가능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회사를 유치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셀트리온과 같은 현존하는 바이오 제조회사에 안정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내의 생산가치사슬을 안정화시킬 수 있음.
 - 송도의 한정된 입지면적을 고려하면, 제조회사보다는 바이오 **임상시험 전문기관, 연구소,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한국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1. IFEZ 투자유치 방향(ICT, 물류)

- 자동차 부품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관련 업종으로의 외국인투자가 다수 이루어졌음.
 - 국내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대기업이 송도지역에 입주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동 업종으로의 추가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송도와 국내의 대표적 자동차(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반도체(삼성전자 수원공장) 생산 지역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이므로, 이들 지역의 대기업들과 연계 가능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가능성 있음
 - 단, 바이오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송도는 바이오와 관련된 IT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임.(바이오데이터센터, 바이오 기기, 헬스케어 등) **Digital Bio !**
- 더불어, 이들 지역과의 물류를 담당할 물류서비스의 투자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음. **Bio Logistics !**
- 서비스 및 교육분야의 투자는 유망하지 않으나, 코로나19이후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서비스산업(데이터처리 및 관련 서비스업), 물류산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 등은 넓은 부지의 용지를 요구하지 않는 바,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음.

4. IFEZ 투자유치 전략과 방향

4-1. IFEZ의 투자유치 방향

4-2. IFEZ의 투자유치 아이템 포트폴리오 수립

4-3. IFEZ의 투자유치 기업 도출

4-2. IFEZ의 투자유치 아이템 포트폴리오 수립

1) 무역경쟁력

-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해 외국인기업이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업/품목을 찾아봄
- 자동차 및 수송장비,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플라스틱, 유기화학물, 철강, 기계류 등의 산업이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규모 또한 큼.
 - **철강**은 제철소 인근지역(포항, 광양, 당진)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품목으로서, 송도지역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산업으로 분류
 - **화학물**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클러스터가 이루어져 있어서, 송도지역으로 FDI 유치 불가능
 - **플라스틱류**는 수출경쟁력이 높으나, 외국인투자를 통해 향후 발전시켜야 할 품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
 - **결국, 현재 송도지역의 산업특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집중도를 비교하면, 자동차부품, 전기기기장치 및 기기(IT품목)로 귀결됨.**
 - **의약품**의 경우, 수출 약 **42**억 달러, 수입 약 **76**억 달러로 수출경쟁력이 낮음. 하지만, 송도의 바이오 생산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IFEZ의 인천공항과 항만을 활용, **물류** 서비스의 발전 또한 기대해 볼 만함.

4-2. IFEZ의 투자유치 아이템 포트폴리오 수립

2) 투자가능성(바이오)

- 송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발단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의료·바이오·헬스케어 분야임.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70여개 기업의 바이오 생산능력은 약 56만 리터로, 샌프란시스코(44만 리터), 싱가포르(27만 리터)를 넘어선 세계 제 1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IFEZ는 기존의 4, 5공구와 새롭게 조성될 11공구를 연계한 의료·바이오·헬스케어의 중심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송도에 입주해 있는 (준)대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의 공급가치사슬을 함께 할 수 있는 해외기업을 유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전망됨.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대규모 바이오제약회사의 원부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자의 IFEZ투자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바이오 CDMO분야는 R&D, 바이러스 테스트, 임상시험, 동물시험 등을 실시하는 분야로서, 특별한 임상분석이 가능하거나 동물실험에 특화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기업들과 협업을 추진
- 바이오스타트업, 바이오 엑셀러레이터 타운을 조성하여, 바이오 앵커기업과 연계한 상생발전 기대
- 바이오 인력 양성 기관 유치(K-NIBRT)
- 바이오산업정책연구 기관 설립

4-2. IFEZ의 투자유치 아이템 포트폴리오 수립

2) 투자가능성(ICT, 물류)

- 인천국제공항, 인천신항 등의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IFEZ내에서 물류 및 유통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직구는 21.1%, 역직구는 49.8% 연평균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외직구 및 역직구가 선박이 아닌 항공을 이용하는 바, 국제 물류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필요성
 - 단순 물류운송서비스를 넘어서서, 지역 유망산업과 연계된 물류서비스의 사업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예: 송도에 입주해 있는 (주)셴커코리아는 **2019년에 의약품**을 운송할 수 있는 ‘**CEIV(Center of Excellence for Independent Validator) Pharma**’를 취득함에 따라, 송도지역의 의료·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과 부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동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
- 송도지역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ICT산업이 입주해 있으며, 주변지역의 ICT산업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바이오클러스터(11공구)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부지가 넓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ICT분야에서는 제조보다는 연구소를 유치할 필요

4-2. IFEZ의 투자유치 아이템 포트폴리오 수립

3) 미래 성장 가능성: 바이오

-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는 약 10.5조원(2018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 6.6%의 연평균 성장을 시현
- 바이오산업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산업의 비중은 약 3.7조원으로서 전체의 35.4%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식품(3.1조원; 29.6%), 바이오화학·에너지(1.7조 원; 16.4%)가 차지
- 외국인 직접투자자는 국내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IFEZ의 우수한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큼**
-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도 합성의약품 시장의 크기는 줄어드는 반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IFEZ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동 분야에서의 FDI 확대는 반드시 필요함.**

한국 바이오 산업 생산, 수출규모(2018)

산업분야	내수	수출	합계	비중
전체	52,955	51,809	107,464	100.0
바이오의약	16,464	20,658	37,122	35.4
바이오식품	12,437	18,549	30,986	29.6
바이오화학·에너지	16,127	1,051	17,178	16.4
바이오서비스	3,781	6,313	10,094	9.6
바이오의료기기	1,622	4,646	6,268	6.0
바이오자원	1,532	235	1,767	1.7
바이오장비·기기	458	339	797	0.8
바이오환경	536	16	552	0.5

4-2. IFEZ의 투자유치 아이템 포트폴리오 수립

3) 미래 성장 가능성: ICT산업

- 우리나라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전자기기, 특히 IT산업임
- 우리나라 ICT 산업은 이미 대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경제가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됨에 따라 ICT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각종 온라인 플랫폼(쇼핑, 게임, OTT, 학습)의 성장과 함께 ICT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확인 될 것임.
- 더불어, 데이터 전송량이 증가함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비 제조업 및 데이터 처리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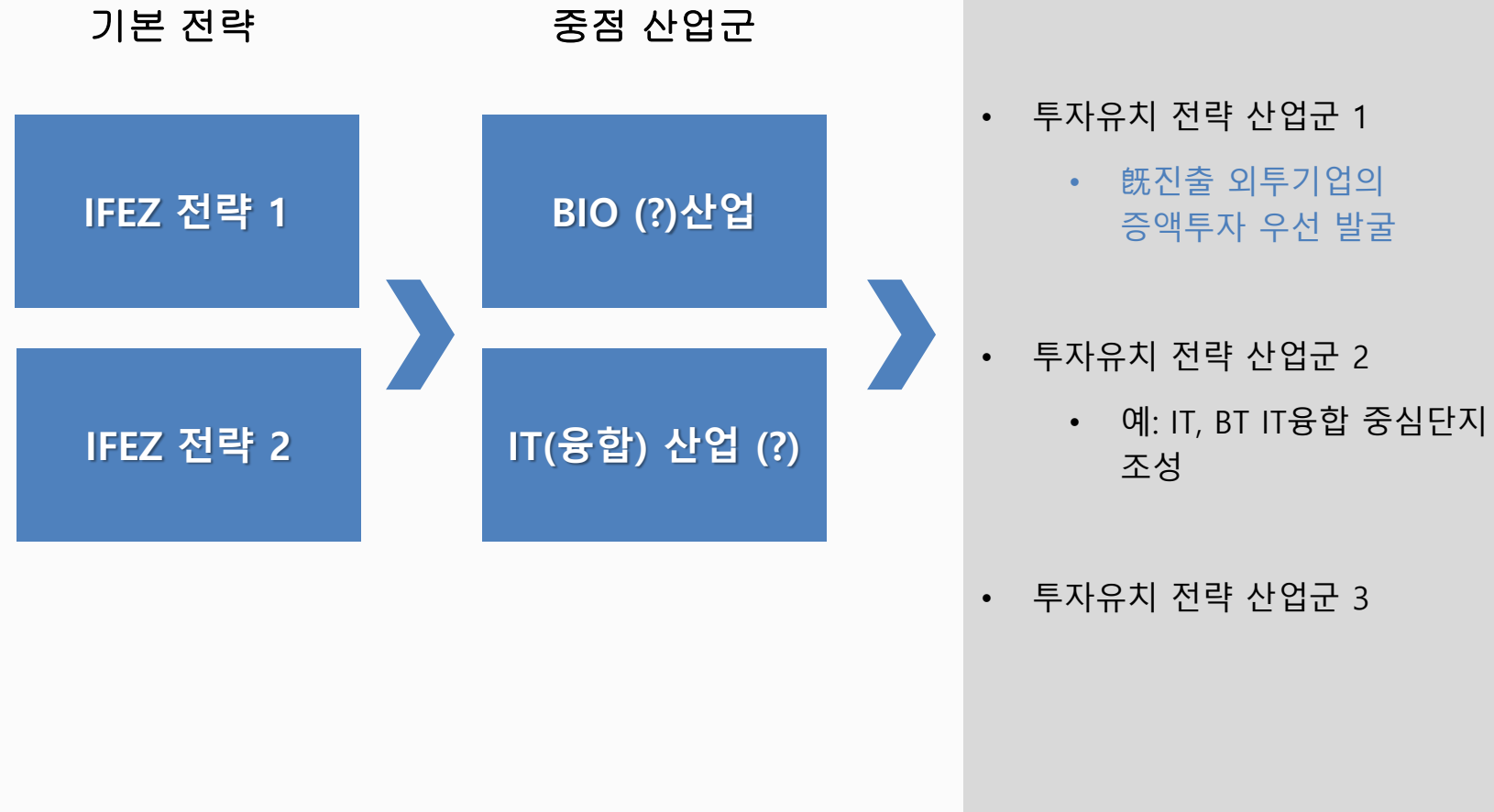
4. IFEZ 투자유치 전략과 방향

4-1. IFEZ의 투자유치 방향

4-2. IFEZ의 투자유치 아이템 포트폴리오 수립

4-3. IFEZ의 투자유치 기업 도출

4-3. IFEZ의 발전 컨셉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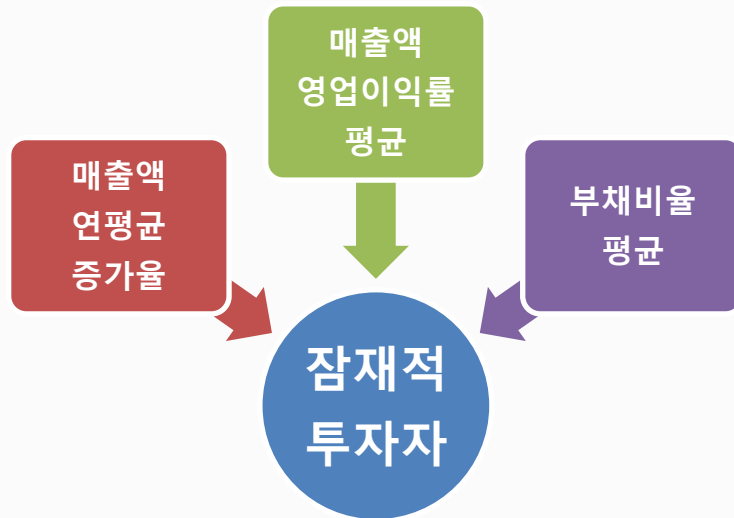
4-3. IFEZ의 투자유치 기업 도출: 기업의 재투자 여건 분류기준

- ◆ 기업의 재무분석을 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순이익증가율
 - 수익성 –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영업(경상/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안정성 – 부채 대 총자산 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고정장기적합률
 - 유동성 – 순운전자본, 유동비율, 당좌비율
 - 효율성 – 매출채권회전율과 평균회수기간, 평균자산회전율과 평균보유기간, 매입채무회전율과 평균지급기간 및 운전자본소요기간, 고정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
 - 생산성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비율, 자본생산성비율

- ◆ 자료의 제약과 중복되는 지표를 배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한 재무분석 지표 중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함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안정성 –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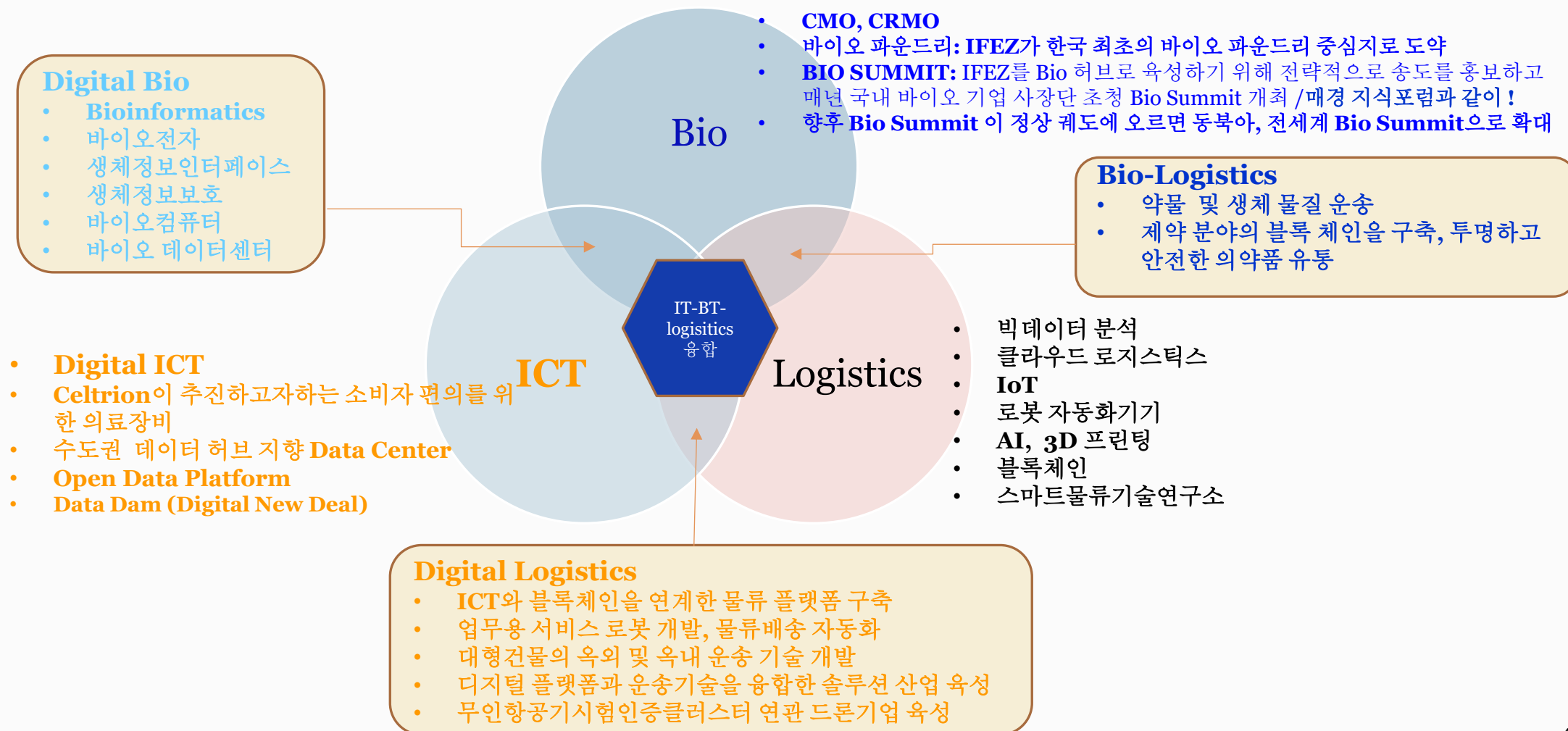
4-3. IFEZ의 투자유치 기업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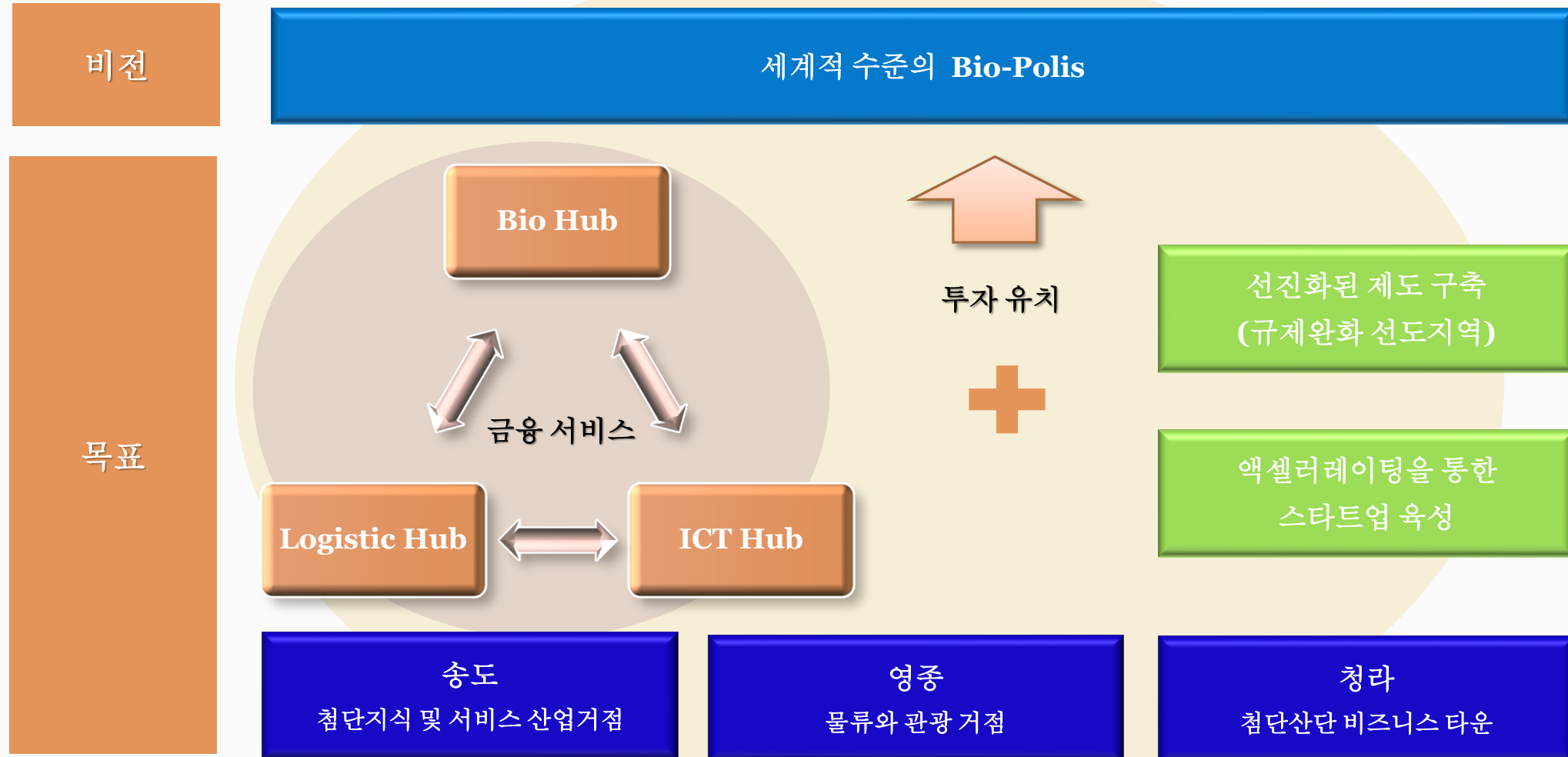
1.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인,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을 KIS-Value에서 추려낸 후, 매출액연평균증가율과 매출액영업이익률평균, 부채비율평균으로 변환함
 2.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투자와 +의 관계를 보이고, 부채비율은 -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은 내림차순으로, 부채비율 평균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함
 3. 일반적인 재무상황 판단 시,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이상이 양호, 10%이하가 불량**이고,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 양호, **400% 이상**은 불량으로 구분됨. 하지만, 이 재무비율 판단 기준에 따르면 너무 엄격한 선정을 하게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 여건으로,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0%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평균은 **0%기준**으로, 부채비율 평균은 **200% 미만**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봄.
 4.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순으로 중요도를 두어, 각 기업을 평가할 때, 매출액증가율은 **10% 이상**인 기업들을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은 **200% 이하**인가를 구분하여, 1~5 사이의 점수를 매김.
 5. 매출액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이하**인 기업들은 재무적 측면에서 투자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봄.
- 1~3까지에 포함되는 기업을 투자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선정함.

4-4. IFEZ의 투자유치 전략과 비전: IFEZ의 투자유치 방향

- IFEZ는 의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의 장점 보유



4-4. IFEZ의 투자유치 비전과 목표



4-4. IFEZ의 투자유치 비전과 목표: 비전 선언 및 추진전략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성을 설정하였음

Vision Statement

VISION

**Bio Foundry와 Digital Bio를 이끄는
세계적 수준의 Bio Polis**

- 세계적 수준
 - ✓ 세계적 수준의 Bio Foundry 산업 육성 위한 Bio Polis
- 미래 기술
 - ✓ CMO, CRMO, Stem Cell을 활용한 맞춤형의학 등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Bio Polis
- Bio 기술 선도
 - ✓ Bio 기술의 세계적 표준을 리드하는 Bio Polis

추진 전략

- 1 **전문인력, 자본, 기술 위주의 투자유치**
 - 양적 성과 위주의 투자유치에서 투자유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
- 2 **투자유치 환경 개선**
 - 규제완화의 Test Bed 본연의 기능 강조 및 활용
- 3 **국내외 기관과의 Networking 역량 확보**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학, 연구소, 기업 및 유사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
- 4 **최상의 행정 서비스**
 - 행정개혁을 통해 가장 신속하고 투명한 FEZ 행정을 선도

5.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5-1. 투자환경 조성 전략

5-2.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5-3. 주요 산업의 IR 전략

5.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1. 투자환경 조성 전략

1)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 물류와 ICT 분야

IFEZ의 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의 구조(물류와 ICT 분야)



5.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1. 투자환경 조성 전략

2) 건물과 대지의 임대 방안

- 임대정책의 필요성
 - 건물과 대지의 임대,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혁신적 공간 제공
 - 싱가포르 사례, 좁은 국토에서 고도화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입지 수요에 성공적으로 부응
- 임대정책 방향
 - 임대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규모,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적률 및 부가가치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하여 선정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3자설비공급자정책** 추진, PF 통한 부외금융 활용 가능
 - 임차인이 연관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공간을 일정 범위 내에서(30% 이내) 전대 허용
 - 토지와 건물의 솔루션, 건축설계업체, 대학 및 관련 연구소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문과 지원 받아야

5.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1. 투자환경 조성 전략

2) 건물과 대지의 임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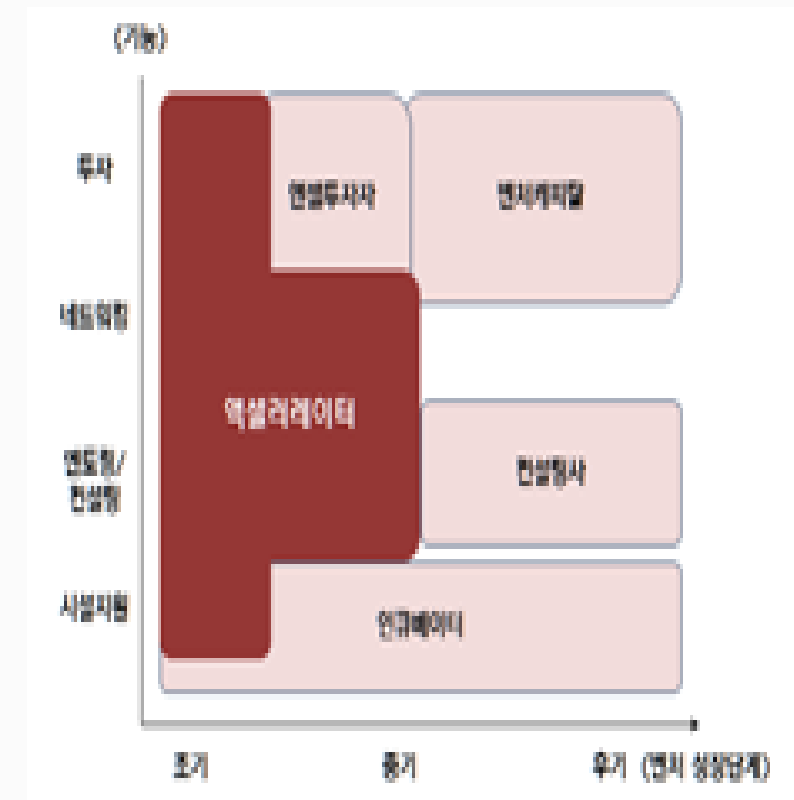
- 건물의 건축과 임대료
 - 업종별, 기능별로 용도와 유형, 규모, 층고 및 접근성 등을 다르게
 - 임대료는 오피스와 랩을 구분하여 책정, 가급적 최대한 저렴하게 부과
 - 안정화될 때까지 낮은 임대료 부과,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개정: 32조 3항에 “혁신적 벤처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
 - 안정화 이후,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기능에 의하여 임대시장 활성화
- 임대산단의 입지
 - 소규모 스타트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진 입지
 - ITP가 11공구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상생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확대 산업기술단지 최적

5.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3) 혁신생태계 활성화 : 액셀러레이터

- 한국은 액셀러레이터가 도입 역사가 일천, 대부분이 1억 미만의 소액을 투자하고 공간 제공, 필요 기능을 아웃소싱하거나 은퇴후 전문가 활용하는 **인큐베이팅** 수준
 - 성공한 스타트업이 상장하여 Exit 하고 자금과 경험 및 역량을 바탕으로 후발기업을 키우는 선순환과정이 나타나기까지는 5년 내외의 시간 소요
- 당분간은 IFEZ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창업공간 마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ITP**등의 주도 아래 교육과 멘토링, 컨설팅 및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 필요 분야마다 **전문액셀러레이터**의 활용 필요
- '인천스타트업파크' 에서 신한은행의 One-Stop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인천테크노파크의 부스트스타트업저니프로그램 등 활성화

1. 투자환경 조성 전략



5.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1. 투자환경 조성 전략

4) 투자유치제도 개선 방향

- Covid-19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내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한편, 유치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우수 중소중견기업도 유치
- 인센티브제도는 투자기업의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 성과와 지원 결과를 쉽게 연동시키기 위하여 투자금액, 고용창출, 비즈니스의 종류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 FEZ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특구제도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특별법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지위 공고화
-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 및 투자유치본부를 강화하여 투자유치기관으로 면모 일신
-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및 협의 시스템 강화
- 세제 감면 기준 완화 &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입지·현금 지원도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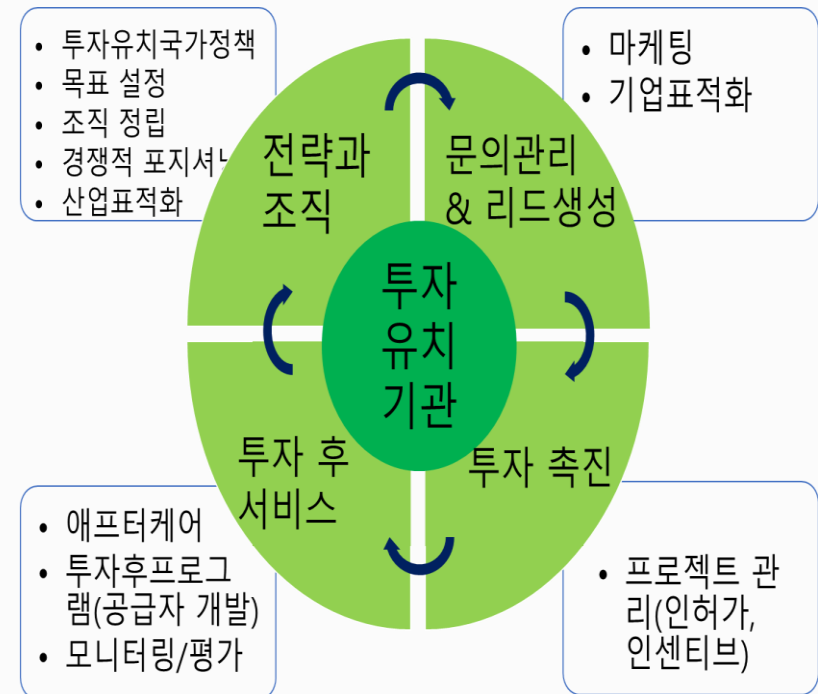
5.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 투자 유치 전략의 4대 범주

- **전략과 조직**: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정책, 목표 설정, 조직 정립, 경쟁적 포지셔닝, 산업표적화
- **문의 관리(inquire handling) & 리드(lead) 생성**: 마케팅(이미지 구축/파괴, 인지 창출, 투자 전망), 기업표적화
- **투자 촉진**: 프로젝트 관리(신속한 인허가 절차, 인센티브)
- **투자후서비스**: 애프터케어(Aftercare), 투자후프로그램 개발(공급자 개발), 모니터링과 평가
글로벌 투자유치기관들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IFEZ 4대 범주별 전략과 check list 제시



2.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5.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 Covid-19 이후 기본 전략

▪ 비대면 방식 강화

- 전시회, 투자설명회 및 세미나 등을 활용한 IR이나 FEZ-IK 공동 IR 및 현지 방문 IR 등 기존의 대면식 IR 방안은 Covid-19 상황에서 근본적 한계 노정
- 기본적으로 인터넷 베이스의 투자유치 전략을 강화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IR 방식 도입을 확대할 필요성 급증
 - 투자 홍보 IR 동영상을 Homepage와 Youtube에 업로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온라인 화상 협상을 활성화하며, 드론을 활용한 현장 실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신규투자가 어려운 만큼 IFEZ 역내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부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함.
 - IKMP (Invest Korea가 운용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프로젝트 사업을 활용하여 해외투자자와 국내 투자희망업체를 1:1로 연결하여 상담을 주선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

3. 주요 산업의 IR 전략

감사합니다.